

# “관둘까 말까”...워킹맘, 자녀 초교 입학 ‘퇴사’ 고민 최대

KB금융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 발간

[표 13] 직장을 그만두려고 가장 고민했던 시기

(1~2순위, 단위: %)	영유아/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임신했을당시	42.0	25.2	18.0
출신을 앞두고	53.3	42.0	30.7
어린이집에 보냈을 당시	49.1	38.9	29.1
유치원에 입학 시	12.1	13.1	16.5
초등학교에 입학 시		50.5	39.8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7.5	8.5
중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6.7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4.7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4.9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3.5

주: 워킹맘 n=588, 미취학 아동 n=212, 초등학교 n=650, 중고등학교 n=550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이른바 ‘워킹맘’ 중 95%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 퇴사나 이직을 가장 고민했던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로 나타났다.

8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이 퇴사를 고민한 주된 이유는 ‘자녀관련 이슈’와 ‘직장관련 이슈’였다.

특히 영유아·미취학 자녀를 둔 워킹맘 53.3%는 퇴사 고민 시점으로 ‘자녀출산’을, 초등·중·고등학생을 둔 워킹맘 39.8%는 ‘초등학교 입학’을 꼽았다. 자녀가 방과 후 학원 등의 추가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며 점심을 ‘자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중학생 이상으로 판단했다.

워킹맘 54.4%는 부모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이같은 고비를 넘겼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관련 이슈’는 감소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자기관리 등 나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느꼈을 때와 같은 ‘본인관련 이슈’는 점차 증가했다.

◇워킹맘 54.8% 직장내 복지 이용...계속 일할 의향 높아져

워킹맘은 현재 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직장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순으로 두고 있으며, 5:4:1의 비율로 생활하

고 있다.

워킹맘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워킹맘을 위한 휴직, 휴가 또는 자녀관련 복지제도를 이용해 본 경우는 54.8%였다. 주로 육아휴직과 특별휴가, 유연근무제, 자녀보육비·학비지원 제도 등을 이용했다.

워킹맘의 75.1%는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직장내 복지혜택을 이용해 본 워킹맘의 경우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향이 특히 강했다.

워킹맘은 현재 직장에서 7일 중 평균 5.1일 근무하고 있으며, 39.4%가 현재 근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거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아서’ 등의 이유에서다.

워킹맘의 대부분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실천을 위해서는 ‘워라밸 실천에 대한 직장/조직 내 분위기 조성’(86%), ‘회사동료/상사의 배려와 이해’와 ‘가정생활과 양립가능한 사내제도 마련/정착’(이상 81%)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유시간 하루 평균 1시간 51분...가사지원서비스 이용에 적극적

워킹맘이 평일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3시간 38분으로, 전업맘보다 2시간 31분 적었다. 그러나 주말/공휴일에 가



족과 보내는 시간은 9시간 47분으로 비슷했다.

워킹맘은 본인을 위한 여유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51분이라고 응답했다. 현재는 ‘TV시청 및 음악감상’, ‘인터넷/스마트폰 보기’, ‘운동’으로 여유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전자제품’(84.1%)과 ‘반조리제품’(80.1%), ‘새벽/맞춤배송’(67%)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막내자녀가 영유아/미취학인 워킹맘

은 육아도우미를 구인해본 경험 비중이 70%였다. 육아도우미 업체(24.3%), 지인소개(20.4%), 아동돌봄서비스 등 정부 및 관공서를 통한 경우(18.2%) 순이었다.

다만 ‘육아도우미가 자녀를 케어하는 태도’(19.4%), ‘육아도우미 신원의 정확도’(14.9%), ‘경제적인 부담’(13.9%), ‘자녀가 받을 정서적 불안감/스트레스’(12.9%) 순으로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경제활동 중에 있는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200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다.

## 워킹맘 비상금 평균 1010만원...온라인 쇼핑은 ‘11번가’ 최다

국내 ‘워킹맘’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11번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를 펴냈다.

◇3개월 내 11번가서 온라인 쇼핑 가장 많아...지마켓 2위

이번 조사에서는 워킹맘의 금융생활을 조사하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워킹맘의 98.4%, 전업맘의 98.7%가 최근 3개월 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온라인 쇼핑 채널

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규모는 워킹맘이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의 13.4%, 전업맘이 12.5%에 달했다.

워킹맘이 3개월 내 품목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둘러본 주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11번가, 지마켓, 위메프, 쿠팡, 옥션 등 순서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는 20~30대보다 옥션의 이용순위가 높게 나타났다(3위). 특히 50대는 다른 연령대에는 순위가 없는 ‘GS샵’(6위)와 이마트몰(7위)을 자주 이용했다.

◇10명중 8명은 비상금 보유, 평균 1010만원

워킹맘의 78.6%, 전업맘은 70.7%가

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규모는 워킹맘이 1010만원, 전업맘은 1103만원이었다.

보유 규모는 생활비와 금융거래용 통장을 부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났다. 본인과 배우자가 통장을 각각 관리하는 경우 보유한 비상금은 1185만원이었다. 워킹맘 본인이 관리하거나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보다(본인 관리 963만원, 배우자 관리 695만원) 많았다.

워킹맘이 비상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갑작·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59.0%) 비중이 가장 높았다.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가 31.4%,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 있어서’가 20.9%로 뒤

를 이었다. 이밖에 △부모·형제에게 경제적 지원(19.7%) △가족·지인 선물(18.8%)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14.2%) 등 순이었다.

워킹맘의 절반(49.9%)은 현재 부모에게 경제적이거나 비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친정 부모에 대한 경제·비경제적 지원(56.4%)이 시부모에 대한 지원(43.5%)보다 12.9%p 높았는데, 평소 친정부모(50.9%)가 시부모(19.6%)보다 자녀 돌보기나 집안일 등 가정생활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 투자 관심 많지만, 소득별 차이...금융정보는 포털에서

워킹맘의 금융자산 투자·운용은 예적금(27.2%)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적금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16.4%), 은퇴·노후 설계(16.2%),

절세·재무(9.3%), 주식(8.45) 등 순이었다.

예·적금에 대한 관심 정도는 월가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고, 주식 투자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조정, 펀드·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관심이 늘었다.

워킹맘이 금융정보를 탐색하는 채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47.1%)가 가장 많았고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40.3%)와 신문·뉴스(31.4%), 친구·직장동료 등 지인(28.1%)도 주요한 채널로 활용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정보를 탐색하는 경우는 40대(48.7%)가 가장 활발했고, 금융회사 채널은 50대(47.2%)가 자주 이용했다. 지인을 통해 금융정보를 얻는 경우도 50대(33.0%)가 많았고, 20~30대의 젊은 층은 주로 카페·블로그(30.1%)나 카카오톡 단체카톡방(7.3%)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